

은행 비대면 대출 중단…‘급전’ 필요한 차주들 불편

정부 ‘6·27대책’ 여파 전산 수정 서비스 재개까지 수일 소요 전망
“영업시간 맞춰 은행 직접 가야”
대면창구 찾은 시민들 불멘 소리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 여파로 은행권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닫으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차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 앱에 익숙한 청년층부터 긴급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까지, 당분간 대면 창구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0일 찾은 광주광역시외의 한 은행에는 대출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이사 자금 일부를 대출

로 충당하려 했는데, 앱에서 신청이 막혀 당황했다”며 “영업시간에 맞춰 직접 은행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규 접수를 일제히 중단한 상태다.

영업점 없이 모바일 앱으로만 운영하는 카카오펀크와 케이뱅크 등도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멈췄다. 지역 기반의 광주는 행 또한 전세대출과 주담대 등의 비대면 신청을 일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여파다. 새 규제안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범위 내로 한도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다. 규제가 발표 하루 만에 즉각 시행되면서, 은행권은 사전준비 없이 전산 시스템 수정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비대면 대출 창구가 동시에 중단됐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일선 은행에는 관련 전화·방문 문의가 증가하기도 했다.

각 은행들의 전산 시스템에 새 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에는 최소 일주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단순한 문구 변경을 넘어 대출 조건, 심사·소득 반영 기준 등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광주·전남 지역도 일부 혼선이 있는 듯하다”며 “특히 전산을 급히 수정해야 하는 특수상황이라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한 채 작업과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

대한 빠르게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규제를 시행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전체의 80% 이상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만큼, 비대면 창구 중단에 따른 차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체로 비대면보다 금리가 높은 대면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점 역시 서민들에게는 부담이다.

자영업자 박모(55)씨는 “당장 카드값을 막아야 했는데, 앱으로는 대출이 막혀 상당히 불편했다”며 “갑작스러운 규제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재개되더라도 대출 문턱은 전보다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은 신규 대출에 있어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일일 한도를 제한하거나 심사 기준을 더 까다롭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의 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크록스 이색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크록스 신발 모양의 빵과 크록스 신발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크록스’ 이색 팝업 행사를 오는 3일까지 지하1층 델리행사장에서 진행한다. 다양한 샌들제품을 특가로 만나볼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 구매시 크록스 빵 1세트 증정 등 구매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경총,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진

회원사에 안전전문가 파견
현장 밀착 점검…산재 예방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2년째 참여 중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안전전문가(공동안전관리자)를 파견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현장 밀착형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기업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밀집 지역 내 고위험 업종 대상 집중 관리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경총이 발간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도급인(원청)과 중간 수급인 및 수급인(하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클릭 한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솔루션도 검토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821개 회원사 사업장의 안전생태계 조성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폭염과 장마철을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 제거·대체·통제방안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 7월 부산서 개최

국내 중소기업 110여곳 참여
시군 홍보관·구매 상담회 운영

대한민국 유망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작지만 확실한 미래, K-중소기업에서 찾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박람회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판

로 확대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110개 업체 및 기관이 참가해 120여개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람회는 △정보의 장 △상담회의 장 △상생의 장 등 3개 주제로 구성된다.

‘정보의 장’에서는 시·군 홍보관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정보관 등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크라우드펀딩과 전문가 특강,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상담회의 장’에서는 구매상담회를 통해 전국의 유통 바이어 및 지자체 구매 담당자와의 만남을 주선, 참가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상생의 장’에서는 정책·자금 활용에 관한 강연과 경영애로 상담관, 지원정책 정보관 등이 운영돼 중소기업의 성장과 상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전국 우수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통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참가 기업은 전시 참가 신청을 통해 제품 홍보와 바이어 매칭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사전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이벤트

안산 선수 등 참여 양궁적금 가입행사

광주은행은 30일 대한양궁협회 장영술 부회장과 2020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TenTen양궁적금’ 가입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25광주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스포츠 축제를 연계한 금융상품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장영술 부회장과 안산

선수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TenTen양궁적금’을 가입했으며, 광주은행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산 선수는 “양궁의 도시 광주에서 이렇게 특별한 금융상품이 출시돼 매우 뜻깊다”며 “많은 분이 광주를 찾고 대회도 함께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enTen양궁적금’은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상품으로, 지난달 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광주은행 TenTen양궁단 선수의 경기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60%p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광주방문의 해’를

기념해 광주 주요 관광지 방문 위치인증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최고 연 0.7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는 양궁대회 응원과 광주 여행, 금융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색 상품으로, 지역민은 물론 전국 고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2025년은 광주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광주의 문화·관광·스포츠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전남신보, 정책·통계센터 고도화 완료

통계·상권 등 실질정보 제공
신규 통계 소상공인 경영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최근 정책·통계센터에 실시간 통계 지표를 대폭 확충하며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신보 정책·통계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정보’와 전라남도 사·

군별 소상공인 현황과 보증공급 실적을 분석한 ‘통계정보’, 창업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권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고도화는 지난해 8월 센터 개설 이후,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통계정보 항목 내에 △전남 및 전국 평균 매출 통계 △전남 업종별 매출 통계 △전남 소상공인 대출 통계 등 소상공인의 경영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중 소상공인 대출 통계지표는 오는 8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추가된 매출 및 대출 통계는 지역 업종별 시장 흐름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창업 준비나 경영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신보는 향후 정책·통계센터를 전남도 공식 누리집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지역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